



(가)에서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다. (가)에서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던 것이 이름을 부르고 나서 '꽃'과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된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나)에서는 '혐오 표현'을 정정하는 행위는 정치적 관점에서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이 또한 어떤 대상의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그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의 언어관은 언어와 사고간의 관계에서 중요성과 영향력 두 측면에서 모두 언어를 우위에 두는 입장인 (다)의 ㉠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어떤 대상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그 대상의 의미 규정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가)와 (나)는 대상은 자신을 지칭하는 언어를 갖게 됨으로써 의미를 가지고 부여된 언어는 행위자들이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는 기호(sign)가 의미 창출 과정을 함축하고 언어에 따라 인식과 사고방식이 변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다)의 ㉠과 매우 유사한 입장이다.

(라)의 '후진국'이라는 단어는 '정치적 올바름'의 관점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을 담고 있다. (라)에 제시된 '후진국'의 일반적 의미는 현재의 저발전 상태만 부각함으로써 그 나라의 역사적 특수성이나 미래의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리하여 '후진국'이라는 단어는 그 나라에 대한 시각을 단순화시키고 '후진국'이라는 단단한 프레임 아래에서 그 후진성은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시킨다. 이러한 부정적 의미의 '후진국'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로는 '개발도상국' 정도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 교체는 특정 국가의 현재 저발전 상태를 덜 부각시켜 그 국가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교체된 단어마저 다시 논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이라는 단어는 특정 국가의 개발 수준이 어떠한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규정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발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사례는 '정치적 올바름'은 단어에 부각되고 있는 편견을 제거한다는 의의가 있지만, 그 편견을 가늠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또 다른 편견의 기준으로 옮겨가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